

“회복되어 땅 끝까지 빛을 발하자”

יהוה רעה

여호와 라아

The Lord is shepherd



“여호와 라아의 은혜를 받자”

[시 23 편, 겔 34:11-1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

1부 중보기도 : 선교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 엘리사벳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주일에배를 위한 기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 118:14]

1.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과 모든 예배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평강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일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푸른 초장,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의 잔이 넘치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3.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불경건과 불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4. 예배를 통해, 영혼이 소생케 되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며, 상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5. 온라인 예배를 통해, 곤고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중보자들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열납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권상욱목사님, 2 & 3부: 김대규목사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시 44:8]

1. 찬양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2.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악기와 시스템, 그리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3.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과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4.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과 들을 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문기훈목사님, 김대규목사님, 김상대목사님)

- 사회 담당 목회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암송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3. 대표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한상혁장로님, 김준규장로님, 김정기장로님)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드러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 104:33]

1.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영감과 영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아(시 23; 겔 34:11-16)**’의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3. 목사님의 가정을 능력의 오른팔로 지키시고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으셔서 사랑과 긍휼의 섬김을 감당케 하옵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승리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모든 사이버테러를 막아주옵시고, 악한 도모가 모두 무산되게 하옵소서>
4. 성도들의 영혼이 침을 얻고, 믿음을 견고케 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심비에 새겨지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5.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큰 깨달음을 주시고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천번제 새벽기도 (4/10/2021 까지)

Freedom 40 기(남) : 3/19~21 (여자가:26~28)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 3/29(월)~4/3(토)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ONLINE & OFFLINE 예배를 축복합니다(오프라인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으로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흑암의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3.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기르시며 날마다 돌보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매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4.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위로 받고 새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3.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의 길로만 걸어가는 구별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4.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5.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하게 예배를 섬기게 하옵소서.
-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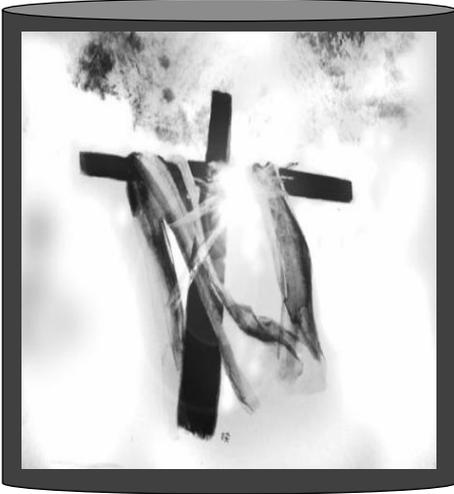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9:7-8]

1. 모든 재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옵소서(고후9:7).
2.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헌금하게 하옵소서(고후8:5).
3. 성도들의 기업마다 재물의 청지기로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복을 받는 기업들이 되게 하옵소서.
4.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5.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축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케 하옵소서. 아멘!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1.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기도와 금식, 그리고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점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 한 주간도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며 살게 하옵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3. 모든 성도들이 주일예배와 금요성령집회, 일천번제 새벽기도, 큐티, 가정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4. 예배적 삶이 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 다음 세대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탁월한 영성으로 무장하여,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2. 다음 세대를 방치한 기성세대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교육과 문화 속에 다음세대를 지켜 주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주셔서 다니엘과 에스더 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셀모임도 활성화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4. 어와나 프로그램에 교사를 더 보내 주시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무장되어 승리의 용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5. 4월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6. Jesus' Light 성도들이 비디오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성령충만 하게 하옵소서.

• 교회 환우들을 위한 기도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마다 속히 치유되게 하옵시고, 백신의 공급도 원활하게 하옵소서.
2. 환우들이 질병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3.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시고, 두려움을 주는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을 쫓아주시며 날마다 주님께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4.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절망과 낙심,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에서도 자유케 되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8.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1. 김광신 목사님 내외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2.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을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사 모든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선교 현장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3. 핍박과 박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4.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정(특별히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사역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매순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특별히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GMI 모든 선교지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열린 손(잠언 3:27)과 열린 문(골 4:2-3)과 열린 생각(행 26:17)과 열린 마음(고후 4:6), 그리고 열린 하늘(사 45:8)을 허락하옵소서.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사역	항암중이신 선교사님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00 선교사님(베트남) 현지 동역자들과의 사역이 문이 열리도록/ 순회 설교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도록 • 김태환 선교사님(인도네시아) 칼라만탄 복음화를 위해/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건축되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 정 00 선교사님(인도) 비즈니스 초청 비자 문제가 잘 해결 되도록(3/24 까지) • 강 00 선교사님(파키스탄) 비자문제 시급/ 35 도까지 오는 날씨 속에 건강하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정호 선교사님 (한국 탈북민) 14 개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중보기도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 모임 정착을 위해 • 이에신 선교사님 (A 국) 4 월에 새학기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보내주시도록/ 식수와 생활 용수/ 학교 허가문제(지방정부가 방해하지 않도록) • 남국희 선교사님 (C 국) 집에 돌아가지 못한 신학생들에 사랑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잃지 않는 현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신 선교사님 (A 국) 선교지에 들어가 사역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암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 유인숙 선교사님 (C 국) 선훈 3 기 • 엘레나 찬양사역자 (블라디보스톡 교회) • 이해영 선교사님(T 국) 암이 왼쪽 영치뼈로 전이 됨 • 박경희 선교사님(n 국) 4 번째 유방암 수술의 쾌유를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00 선교사님(베트남) 오도바이 사고로 쇄골 수술 쾌유를 위해 • 양창모 선교사님 (터키)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일 선교사님 (몽골)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정 00 선교사님 (인도) 비중격 만곡증(코 연골 문제) 고침 받도록



1. CDC 에 의하면, 백신 접종과 항체를 가진 인구수의 증가로 인하여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앙 활동과 학교 대면 수업, 경제 활동이 속히 정상화 되게 하시고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속히 이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2. 하나님께서 바이든 대통령을 강권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독교 가치관과 진리를 보호하게 하옵소서. 이하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3. 이제 모든 주가 실내 예배를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온 나라가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대 부흥을 통해 믿음과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4.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미국의 헌법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5. 상원에 상정된 평등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미국이 되도록 간구합니다.

평등법 관련 중보기도 요청<프랭클린 그래햄 목사>

: 상원에 상정된 평등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 평등법이 최종적으로 통과 된다면, 법의 광범위한 영향력 하에서, 학교들, 교회들, 그리고 병원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정부의 신념과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이는 강도 높은 강요가 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미치게 됩니다.
 - 평등법은 법의 강제력(공권력)으로 50 개 주에서 크리스천과 다른 종교의 사역 및 종교계통 대학까지 권리를 위협
 - 평등법은 의료전문가들의 양심상의 권리를 박탈할 것(성전환 수술 등 수술 거부권이 없어짐)
 - 종교적 고용주가 그들의 헬스케어 플랜에 성전환 호르몬, 어린이용 사춘기 차단제, 성전환 수술을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됨
- 미국 정보당국, 미국 내 테러 최대 위협은 인종적 과격주의자
- 캘리포니아, 백인 기독교인을 악의 근원으로 교육 : 미국사회의 '탈식민지화(decolonization)'를 목표로 하고, 백인 기독교인들을 "저항하고 전복시켜야 할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민족교육 교과과정이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투표를 앞두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5 일 보도했다.

- 북아일랜드, 장애 태아 낙태 금지법 '통과'
- 한국, 코로나로 일시 귀국한 선교사 6,000 여명... 지원과 재교육 필요성 제기
- 한국교회목회자 186 명, '학생인권계획안' 반대 잇따라 동참 : 이들은 최근 성명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미션스쿨)의 설립이념 침해, 동성애 및 성전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종립학교(미션스쿨)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 격려 활동 금지 및 학생 인권 침해 /종립학교 존립에 심각한 불이익 초래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신전체주의적 등을 지적했다.
- 미얀마 평화를 위해 기도 요청 / 모잠비크 ISIS 활동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중보
- 스리랑카, 2019 부활절 테러 이후 교회 개척 물결 일어나

“바른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번 주간도 시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귀한 아들 리차드 때문에 슬픔에 잠긴 이인희 장로님 가정을 위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차드가 33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선하게 주변에 베푼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져서 감사하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에 부요한 삶이 되는 것이 잘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육신적으로는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위로 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성 평등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권리 확대를 위한 법안인 성 평등법은 지난 2월 25일 연방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성적지향, 성 정체성에 근거한 고용, 주거, 공공시설 접근, 기타 서비스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권 법입니다. 성 소수자들을 위한 법이지만 반대로 대다수 사람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입히는 역 차별법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악법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별을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끔찍한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교회와 종교 단체들은 결혼, 성도덕, 성구분 등에서 종교적 확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안을 폐지하기 위해 남가주 교계에서 급하게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를 구성하고 제가 대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각 언론을 통해 평등법 실체 및 해악을 한인 사회와 교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하여 전 미주에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타 민족 교계를 대상으로도 평등법 저지 운동을 위해 다 민족 연합 기도와 서명 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악법이 폐지 되도록 적극적으로 기도와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에는 GMU 신학교 이사장으로 인가기관인 ATS (미 신학대학원 협의회) 실사 팀들과 줌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지도자 자질론 강의를 유튜브로 진행하였습니다. 목요일에는 총회 장로 고시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요일은 금요성령집회를 인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한주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른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시순절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매일 바이블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일천번제 새벽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영육이 강건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 목사 드림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요 4:47) 하고 한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이 약 80리 떨어진 가나라는 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안타깝게 깨달리는 그의 호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 4:48)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로 달려온 왕의 신하의 마음 속에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열망은 있는데 정작 그 열망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소원은 있되 믿음이 없는 것.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실지도 모른다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열망과 소원을 아시고 그의 열망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 즉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인이 있을 때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결과가 따라옴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있는 66 권의 성경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분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재료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그냥 주시면 될 텐데,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절차를 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도 불가피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의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재료가 되며,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바로 표적과 기사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가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들은 이미 나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하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축복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66 권의 하나님의 말씀 이야말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재료임을 믿으시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심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누가복음 23:26]

-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써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온 세대에 걸쳐 하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난당하지 않게 하려고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려고 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그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려고 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로부터 면제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슬픔에서까지 면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고난당할 것을 예상하십시오.

그러나 시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위로를 얻읍시다. 경건하다는 이유로 괴로움을 당한다든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조롱을 당할 때면, 그것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에는 이미 주님의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주님의 어깨에서 묻어난 핏자국이 그 무거운 짐 위에 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목자가 앞서서 양떼를 인도해 가듯 주께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며 가십니다. 그러니 매일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또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시몬이 그 십자가를 혼자서 다 진 것이 아니라 끝 부분만 지고 갔다고 말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가 십자가로 엇갈리는 무거운 부분을 지고 가시고 시몬은 가벼운 끝 부분만 지고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부분을 지시고 여러분은 가벼운 끝 부분만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은 비록 그 십자가를 아주 잠깐 짊어졌을 뿐이지만 그것이 그에게 영원한 명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대부분이 잠깐뿐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면류관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서는 대신 그것을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